

긍정 · 격려로 빛어진 여자 수구 '역사적 첫 골'

한국, 개최국 자격으로 남녀 수구팀 출전
대한수영연맹, 5월말 부랴부랴 대표팀 꾸려
전문 수구 선수 없이 경영 선수들로 구성
대표팀 목표 '한 골'...헝가리와 데뷔전 0-64
두 번째 러시아전서 경다슬 골망 흔들어

한국 여자 수구 대표팀의 역사적인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첫 골은 긍정과 격려로 빛어졌다. 세계 수준과 비교하기 힘들만큼의 전력 차이에도 웃으며 서로를 응원했기에 '첫 골'이라는 소박한 목표를 이룰 수 있었다.

한국은 개최국 자격으로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남녀 수구팀을 출전시켰다. 남자 수구의 경우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딴 적도 있지만, 여자 수구는 대표팀이 꾸려진 것 자체가 처음이다.

대한수영연맹은 5월말에야 부랴부랴 대표팀을 꾸렸다. 대표팀이 훈련을 시작한 것은 세계선수권대회를 불과 40여일 앞둔 6월2일이었다. 게다가 전문 수구 선수는 한 명도 없다. 대부분 경영 선수들로만 이뤄진 대표팀은 중학생 2명, 고교생 9명, 대학생 1명, 일반부 1명이 포함됐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이는 세계선수권대회는 이들에게는 너무 버거운 무대였다. 그래서 대표팀의 이번 대회 목표는 '한 골'이었다.

홀로 레이스를 펼치는 경영만 하던 선수들이 모였지만, 오히려 말인니 오희지(23·전남수영연맹)를 중심으로 똘똘 뭉쳤다.

여자 수구 대표팀을 지도하는 흥인기 코치는 "개인 종목인 경영만 하던 선수들이라 단체 종목을 하는 것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선수들이 수구의 매력에 흠뻑 빠진 것 같다. 쉬라고 해도 선수들끼리 야간 운동을 하더라"고 전했다.

여자 수구 대표팀의 세계선수권대회 데뷔전은 혹독했다. 지난 14일 헝가리와의 2차전에서 0-64라는 기록적인 패배를 당했다.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수구 역사상 한 경기 최다 점수

차였다. 헝가리가 71차례 슈트를 던져 64골을 넣은 반면 한국의 슈팅 수는 3개에 불과했다.

처절한 패배에 실망하거나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대표팀 선수들은 서로 격려하면서 힘을 북돋웠다. "다음에 더 잘해보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오히려 다음 경기 각오를 다졌다."

헝가리전을 마친 뒤 오희지는 "서로 수고했다며 격려했다. 지금은 다그치고 혼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힘을 내서 한 골이라도 넣을 수 있게 다독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기에서 '한 골'이라는 소박하지만 큰 목표를 이루는데 성공했다.

경다슬(18·강원체고)이 주인공이었다. 경다슬은 0-24로 끌려가던 4쿼터 3분44초 러시아 골문 오른쪽 측면에서 강한 슈트를 날렸고, 러시아의 골망을 흔들었다.

경기 내용도 헝가리와의 1차전보다 훨씬 좋았다. 슈팅을 무려 30개나 시도했다. 헝가리전과 비교해 10배가 늘었다. 슈팅이 많아지니 골도 나왔다. 12차례로 가장 많은 슈팅을 던진 경다슬이 득점에 성공했다.

경다슬은 "예상은 했지만, 0-64면 정말 큰 점수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 이제 안 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코치님, 언니들, 친구들과 함께 '내일은 더 잘해보자'고



16일 오전 광주 광산구 남부대학교 수구경기장에서 열린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여자 수구 조별리그 2차전 대한민국-러시아 경기에서 한국이 30-1로 패했다. 경기 종료 후 한국 대표팀이 기뻐하고 있다. 이날 한국은 경다슬이 첫 골을 넣었다.

긍정적으로 생각했다"며 "우리가 잘하려고, 이겨려고 나온 것이 아니다. 끝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생각이었다. 엄청난 각오를 했다"고 전했다.

경다슬은 첫 골을 성공한 소감을 밝히면서도 동료들부터 챙겼다. "친구랑 언니들이 제가 골을 넣을 수 있

는 자리를 만들어준 덕분에 골을 넣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공을 돌렸다.

이날 경기를 마친 뒤 대표팀 선수들은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했다. 경다슬은 "경기 후 한 명이 잘한 것이 아니라 다들 너무 잘했다고 서로 격려했다"고 말했다.

경다슬이 다음 목표를 말할 때도 대표팀이 얼마나 똘똘 뭉쳤는지 느낄 수 있었다. 자신이 골을 더 넣겠다는 각오를 드러낸 법도 했지만, 그는 "이제 목표를 달성했으니 저 뿐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겠다"고 다짐했다.

“침 · 부항 신통해요”...한의과 진료실 인기

“치료 효과 빠르고, 도핑 부담 없어”



2019 광주 세계수영연맹(FINA) 세계선수권대회 선수촌 내 한의과 진료실이 선수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16일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 우산동 선수촌의 문을 연 5일부터 15일까지 선수촌 메디컬센터 내 한의과 진료실은 총 255명(33%)이 한의과 진료실을

찾았다.

개촌 직후엔 주로 각국 대표팀 임원진(팀닥터·코치 등)이 침·부항, 주나·테이핑 요법, 도수 치료 등 한의과 진료를 접했다.

지난 12일 대회 개막 전후로는 훈련·경기에 따른 근육 당김·손상 또는 목·팔·허리 통증으로 진료실을 찾는 아티스틱 수영·다이빙·수구 선수들이 많아졌다.

지난 13일부터는 경영 선수들도 한의과 진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치료 효과가 빠르다"는 동료의 권유나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선수들도 늘고 있다.

터키 아티스틱 수영 흥선 듀엣 테크니컬 팀 여성 선수가 매일 훈련 전후 치료를 받는 등 재진률도 높은 편이다.

한의 진료가 도핑 걱정에 대한 부담이 없는 점도 인기 요인이다.

"선수들은 침·부항·주나 치료 뒤

빠른 호전 반응에 놀라워한다"고 진료실은 밝혔다.

터키 아티스틱 수영선수 루메이사는 "치료를 받고 나니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며 활짝 웃었다.

한의과 진료실에는 박윤형 대한스포츠 한의학회 기획위원, 김광겸 광주시한의사회장, 최의권 시한의사회 부회장 등 한의사 3명이 근무하고 있다.

원광대 한의학과 학생들과 간호사들도 진료를 돕고 있다. 진료실은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데다 최근부터 일평균 40~50여 명이 방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향후 예약 진료도 검토할 방침이다.

진료실에서 활동 중인 한의사들은 "한의학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세심한 치료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힘쓰겠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15일에 FINA 부회장 샘 램사미(Sam Ramsamy)가 진료실에서 침 치료를 받는다면, 한국·중국선수단 코치진이 같은 장소를 찾아 둘러보기도 했다.

조은비 · 문나윤, 다이빙 여자 10m 플랫폼 준결승행 무산

여자 다이빙 대표팀 조은비(24·인천시청)와 문나윤(22·제주도청)이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다이빙 여자 10m 플랫폼 준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문나윤은 16일 광주 남부대학교 시립국제수영장에서 열린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여자 10m 플랫폼 예선에서 1-5차 시기 합계 268.50점을 얻었다. 38명 중 22위에 올라 18명이 겨루는 준결승행 티켓을 확보하지 못했다.

말인니 조은비도 고배를 마셨다. 2년 전 부다페스트 대회 때 한국 선수로는 유일하게 준결승에 안착했던 조은비는 합계 263.45점으로 23위에 머물렀다.

여자 10m 플랫폼은 올림픽 정식 종목이다. 이번 대회에 결승 진출자 12



문나윤은 내년 도쿄올림픽 출전권이 주어진다.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